

## 현대 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에 관한 연구 (제2보)

한수연<sup>†</sup>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Glamour Look Expressed in Fashion (Part II)

Sooyeon Hahn<sup>†</sup> · Sook-Hi Y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4. 26. 접수)

#### Abstract

This thesis is purported to contemplate glamour look reflected in fashion history, thereby to establish the styles of glamour expressed in fashion trends and to provide the categorical basis of fashion design. For such purposes, this thesis first provides the historical survey on the glamour look in fashion, and to conduct a case study by conducting survey of fashion photographs captured in an internet site called Firstview(www.firstview.com) during most recent ten-year period covering *prêt-à-porter* design products presented by ten leading Italian designers.

Based upon the historical survey, there are four representative styles in glamour looks, including (1) luxury glamour, (2) hyperfeminine glamour, (3) kitsch glamour, and (4) romantic glamour. Luxury glamour looks were most often utilized by fashion designs of Valentino and Armani,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frequent usage of glittering details intended to emphasize the surface decoration. Hyperfeminine glamour looks were characterized by the frequent usage of black color in an effort to create fetish atmosphere or sensuality, which can be discovered from the fashion designs of Versace, Cavalli and Ferre. Kitsch glamour looks were characterized by the appropriation of details of vulgar subcultural features mixed with strong color combinations and ethnic trimmings. Versace, Cavalli and Dolce & Gabbana were the main designers of kitsch glamour looks. Finally, romantic glamour looks, which were mainly expressed by Valentino, Dolce & Gabbana and Versace, were characterized by nostalgia and luxury with light colors and materials such as lace and transparent fabrics.

**Key words:** Content analysis, Glamour look, Aesthetic value; 내용분석, 글래머 룩, 미적 가치

### I. 서 론

글래머는 '부와 성공을 제시하는 육체적 아름다움'(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을 지칭하는 말로서, 글래머 룩은 흔히 '스크린 스타의 섹시한 이미지처럼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잘록한 허리 등 몸매를 강조한 스타일'(정홍숙 외, 1998)이라는 의미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에서는 글래머의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일련의 전시와 심포지엄이 개최된 바, 할리우드 글래머 외에도 디자인 측면, 소비문화적 측면 등에서 글래머 개념에 대하여 다각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글래머 개념을 바탕으로, <제1보>에서 사적 고찰을 통해 제시한 글래머 룩의 미적 가치와 유형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ppsyhahn@hanmail.net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룩의 미적 가치와 유형을 1996년-2005년의 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조형적 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는 패션에 표현된 현대인의 스타일을 성찰하고 글래머 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패션 디자인 교육상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0세기 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을 조형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의미와 양상을 살펴본다.
2. 최근 10년간 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의 조형적 특성을 조사한다.
3. 글래머 룩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미적 가치를 실증적인 내용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본 연구의 최근 디자인 현상의 구체적 사례 연구를 위해서, 1996년 s/s부터 2005년 a/w 시즌까지의 이탈리아 디자이너 10명(Dolce & Gabbana, Gianfranco Ferré, Giorgio Armani, Gucci, Moschino, Prada, Roberto Cavalli, Valentino, Versace)의 기성복 컬렉션자료를 내용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글래머 룩의 유형

### 1. 글래머 룩의 개념

흔히 할리우드 영화배우와 연결된 룩으로 정의되어 온 글래머는, 최근 그 개념에 대해 다각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Rosa, 2004). <제1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패션에서의 글래머는 상품으로서의 여성이 소비되면서 외양과 본질이 동질화될 때 생겨나며, 우아함과 사치스러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마법과 같은 방식으로 발휘하여 보는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끌리게 만드는 매력이다.

한편, 패션에서의 '룩'은 복식의 양식이 특정 재단이나 선, 색, 형태들을 빌려 시대정신이나 혹은 개인 디자이너의 예술의지를 표현하며 문화를 반영하는 개념(김민자, 2004)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복식의 양식으로서의 글래머 룩은 글래머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심미적 표현성을 의미한다.

복식의 양식으로서 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의 미적 가치는 사치성, 과잉성, 가장성, 차용성, 관능성, 퇴폐성으로 조명할 수 있다. 사치성은 고가성을 전제로 하며, 지위 상징이나 미를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장식 그리고 탁월한 품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정교하게 완성된 작업으로 나타난다. 과잉성은 극단적인 양적 풍부함, 거대성, 규모의 웅장함 또는 지나칠 정도로 장식되거나 심한 노출, 의미의 과잉으로 보이는 강박적인 집착을 의미한다. 은유적 피복을 다루는 정체성의 기술을 의미하는 가장성은 현실에서 초월하여 자기-극화를 통해 이상의 세계에 촉각적인 실재, 인간적인 연관성을 부여하는 모호한 유혹적 매력이 다. 차용성은 시공간적 절충을 통해 기존의 형상을 합성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움을 창조한다. 관능성은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 곡선을 육감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퇴폐성은 데카당스 또는 에로틱화된 폭력에 대한 암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글래머 룩의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룩의 사적 고찰을 행하였다.

### 2. 글래머 룩의 사적 고찰

글래머 룩의 사적 고찰을 행함에 있어서, 글래머 개념이 19세기 말 부르주아계급의 소비문화와 연관되어 나타났으므로 이를 역사적 고찰의 시점으로 삼았으며, 이후 1920년대 이후의 글래머 룩은 Bond(1992)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고찰하였다. 글래머 룩은 전반적으로 보아, 쿠티르와 할리우드 영화 스타, 그리고 팝 스타들과 하위문화에 관련된 스타일로 나타나며 각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에 따라 중심적인 미적 가치가 다른 양식적 차이를 보인다.

#### 1) 블루밍 에이지 글래머 룩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의 블루밍 에이지 글래머 룩은 고급 매춘부 코르티잔(courtesan)을 중심으로 한 쿠티르의 스타일로 대표되며 고급 소재, 모피, 주름장식, 글리터 등의 조형적 특성을 지니며 사치성이 중심이 된다.

19세기 모던 글래머의 기원인 코르티잔은 부르주아 계급과 부의 팽창을 바탕으로 등장한 화려한 고급 창녀로서 우아하고 귀족적인 취향과 세련된 재치를 지닌 환상과 가장의 전문가(Roberts, 1992)였다. 이들은 의복을 하늘하늘한 보우, 리본, 프릴로 장식하여 관능적으로 보이거나 레이스 장식으로 가슴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선호하던 패션은 '실크와 레이스의 프루프루(frou-frou)'의 색채적인 란제리와 실내복, 티가운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Worth, Doucet, Poiret, Lucille

등의 쿠튀리에들은 기꺼이 이들에게 의복을 제공하여 이국적이고 호화로우며 유혹적인 여성성을 드러내며 나타내었다.

## 2) 골든 에이지 글래머 룩

글래머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골든 에이지 글래머 룩은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한 스타 스타일로 대표되며 광택 있는 소재나 신축성 있는 재질의 바디컨서스 라인, 드레이프, 심한 노출 등의 조형적 특성과 관능성과 퇴폐성, 가장성의 미적 가치를 특징으로 한다.

스타는 영화 미디어에 의해 그 전형이 창조되면서 소비를 위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담아 관객의 기대에 걸맞게 이상화되었다. Adrian, Travis Banton, Orry-Kelly, Edith Head와 같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자이너들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재료와 단순한 재단, 인상적인 디테일을 특징으로 배우들의 육체적 매력이 돋보이도록 하였다. 마릴린 디트리히의 팬츠 룩은 도시적이고 드레시한 스타일로 모호하고 관능적인 매력의 표상이며, 빅 화이트 드레스는 몸에 달라붙는 광택 있는 새틴 로브로 성적 매력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마릴린 먼로의 홀터 드레스, 가슴을 강조한 스웨터 걸 스타일 등이 골든 에이지 글래머 룩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 3) 팝 에이지 글래머 룩

1950년대 말 이후의 팝 에이지 글래머 룩의 대표적인 인물은 팝 스타로서, 이들의 스타일에 나타난 금은, 형광색, 이질적인 소재, 팬츠 위주의 믹스 앤 매치 등 비일상적인 조합에는 과잉성과 차용성이 대표적인 미적 가치로 부각되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데이빗 보위 등의 젊은 남성 팝 가수들은 남성의 섹스어필을 상업화하였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점프수트는 웨스턴 영향의 스트레치 의상에서 보여지는 호화로움과 타이트한 신체 노출을 특징으로 하며, 비틀즈, 지미 헨드릭스 등의 밀리터리 룩은 글래머러스하고 사이키델릭한 현란하고 절충적인 히피 스타일이다. 데이빗 보위로 대표되는 글램은 앤디 워홀의 영향으로 양성애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도발적인 화장, 과장한 염색과 공상과학 영화의상 같은 복식, 플랫폼 슈즈 등을 통해 캠프적이고 쾌락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들 팝 스타들은 하위문화와 연계된 차용적이고 과잉적인 스타일을 표현하여, 번쩍거리는 소재에 이질적인 것의 조합, 금

은, 형광색 등 현란한 색을 대비되게 사용하였다.

## 4) 글래머 르네상스 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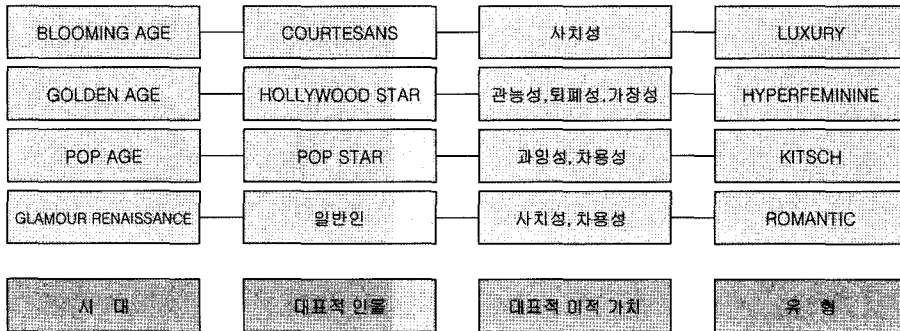
1980년대에서 20세기 말까지의 글래머 르네상스 룩은 상류층, 영화 스타, 팝 스타, 하위문화의 일원들, 나아가 일반인까지도 대표적 인물로 활동한 것으로 조명되었으며 고급 소재와 색채, 역사적 이국적 차용과 스펙터클의 스타일로서 사치성과 차용성을 주로 표현한다. 쿠튀리는 저급문화의 차용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하위문화와 관련된 스타일을 선보이거나 이국적, 역사적인 스펙터클을 통해 글래머러스한 의상을 선보인다. Gaultier, Mugler, Alaïa, Ungaro, Lacroix, Lagerfeld, Westwood, Galliano, McQueen, Versace 등이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된다. 특히 캠프를 통한 수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스타일, 성적 자극을 유도하는 에로틱한 이미지의 페티시 룩, 금붙이 액세서리와 모피 코트와 고급 디자이너 브랜드를 사용하는 힙합 글램 룩 등이 대표적이다. 스타들의 영화제 시상식 스타일인 오스카 스타일 또한 쿠튀리에와 연관되며 스펙터클한 일종의 패션쇼로서 작동한다. 이와 같이 글래머 르네상스 룩은 역사적, 이국적 차용에 걸맞는 아우어글래스 또는 이국적 형태에 자수, 태슬, 깃털, 진주 등의 장식과 금은사, 블랙, 페일 톤 색채의 브로케이드나 벨벳, 투명 소재, 광택 소재 등이 조형적 특징으로 사용된다.

## 3. 글래머 룩의 유형

시대적 고찰을 통한 각각의 스타일을 각 시대의 대표적인 글래머 인물들과 관련지어 미적 가치를 고찰, 분류하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가지의 유형으로 집약, 도출할 수 있다. 즉 블루밍 에이지 글래머 룩에서는 사치성 중심의 유형인 럭셔리 글래머를, 골든 에이지 글래머 룩에서는 관능성과 퇴폐성, 가장성 중심의 유형인 하이퍼페미닌 글래머를, 팝 에이지 글래머에서는 과잉성과 차용성의 키치 글래머를, 글래머 르네상스에서 사치성과 차용성 중심의 로맨틱 글래머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중 지배적인 유형은 할리우드 글래머 바탕의 하이퍼페미닌 글래머가 된다.

럭셔리 글래머(luxury glamour)는 사치성을 중심으로 한 엘레강스한 전통적 쿠튀리와 연관된 스타일로서 부유함의 환상에 열중하게 하는 풍성함, 표면적 외양에 대한 강조로서의 과잉장식의 스펙터클을 이

<표 1> 글래머 룩의 유형



<표 2> 글래머 룩 유형의 조형적 특성

유 형	조형적 특성	
럭셔리	라인	주름장식, 글리터, 풍성한 장식
	색	동일색상
	재질	고급소재(실크, 모피 등), 투명소재
하이퍼페미닌	라인	바디컨셔스 라인, 드레이프, 심한 노출
	색	동일색상, 화이트, 블랙, 레드 등
	재질	신축성, 광택 있는 재질
키치	라인	팬츠가 많음, 믹스 앤 매치
	색	금은, 형광 또는 색상대비
	재질	이질적 소재, 비일상적인 조합
로맨틱	라인	아우어글래스 또는 이국적 형태
	색	금은사와 블랙, 페일 톤
	재질	브로케이드, 벨벳, 투명, 광택 소재, 자수, 태슬, 깃털, 진주

룬다. 고급의 소재나 글리터와 주름장식으로 고가임을 드러내고 여성적인 특징을 지니며 고가의 명품이나 상류계급 인사와의 관련성을 지닌다. 하이퍼페미닌 글래머(hyperfeminine glamour)는 관능성과 퇴폐성, 가장성을 중심적 미적 가치로 하는 유형으로서, 미디어에서 창출한 할리우드 룩의 유혹적인 글래머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여성의 특성을 차용하고 과장하는 한편 신비하고 데카당스한 이국적인 요소를 차용하며 요부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과장된 아우어글래스 스타일을 사용하기도 한다. 키치 글래머(kitsch glamour)는 과잉의 장식이나 색채, 섹슈얼리티의 과잉성과 기존 형상의 재구성과 재해석의 차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이다. ‘bling-bling’의 호화로움의 과도함으로 요란한 모피, 번쩍이는 호화로움의 액세서리와 고가 브랜드, 또는 지나친 세련 장식, 현란한 색채, 깃털장식 등을 통해 속물적이고도 유희적

으로 표현한다. 로맨틱 글래머(romantic glamour)는 과거나 타 문화에서 차용된 장식적 기법과 그 외 기술과 재료의 환상적인 분위기의 장식적인 사치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의 스타일을 지칭한다. 이국적이거나 역사적인 모티프를 통해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주름장식, 레이스, 자수 등의 디테일, 벨벳, 새틴 등 광택 소재와 투명소재, 때때로 꽃문양을 사용한다.

<표 2>는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글래머 룩 유형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 III. 글래머 룩의 실증적 분석

#### 1. 글래머 룩의 내용분석

사적고찰을 통한 글래머 룩 유형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통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은,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와 분포 조사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량적 분석 방법을 총칭한다. 그 단계는 첫째, 명확한 목표나 가설의 설정, 둘째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등의 방법 또는 미리 준비된 범주의 확보, 셋째,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표본의 수집, 넷째, 수집된 표본의 체계적 기록, 다섯째, 적합한 통계기법을 이용한 자료의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Paoletti(1982)는 역사적 패션의 분석에 인상주의적 분석 방법 이외에 정량적인 분석방법인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용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 자료는 인지도가 높은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들을 선정하여 최근 10년간 그 컬렉션에 제시된 패션 사진들 중 글래머의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의 패션 브랜드는 패션 전공자들(패션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5인)의 협의로 선정하였다. 브랜드 선정의 근거는 세계 최대 패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 Firstview(www.firstview.com)에 등록되어 있으며 1996년에서 2005년의 최근 10년간 최소 6년간 여성복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삼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10개(Versace, Dolce & Gabbana, Gianfranco Ferre, Gucci, Giorgio Armani, Prada, Roberto Cavalli, Fendi, Moschino, Valentino)를 선정하였다. 디자이너에 따라 여러 브랜드의 디자인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디자이너별로 선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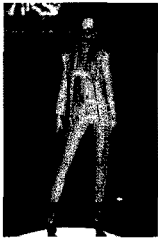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의상은 1996년 s/s 시즌부터 2005년 f/w 시즌까지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발표한 사진자료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 대상 패션 사진은 시즌별 50장씩 20시즌의 총 1000장을 추출한다. 분석 대상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인의 전공자가 글래머의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동의한 사진을 추출한 뒤 학부생 30명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사진 추출시 정면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포즈가 다른 동일한 의상은 제외하였다. 5인의 전공자가 실시한 예비조사는 2005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를 2005년 6월 7-8일에 걸쳐 학부생 30명의 검증을 통해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 한 것

은, 기성복 컬렉션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경우 지나치게 방대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한편, '엘레강스와 관능성에 대한 특별한 감각'(Steele, 2003)을 지니고 장인 정신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이탈리아 패션이 글래머의 특성을 잘 표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탈리아는 파리와 뉴욕에 이어 패션 세계를 이끄는 세 흐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타일은 국제적인 패션 시스템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uckley and Gundle(2000)은 글래머의 이론과 실천을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베르사체의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밀라노는 전통적인 고도의 글래머, 럭셔리한 의복의 본고장으로서, 과시적 소비 특유의 브랜드를 1990년대 말 이후 계속 생산해 오고 있다(Evans, 2003). 한편, 사진 출처로 인터넷 사이트 퍼스트뷰(www.firstview.com)를 선정하였는데, 이 사이트는 컬렉션 자료의 최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약 700여명의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의 패션사진 전부를 싣고 있으며, 편견 없이 디자이너별, 컬렉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므로 사적인 판단이나 편집, 강조 등의 선입관이 배제된 점이 내용분석의 자료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분석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 사적 고찰을 통한 분석에서 도출한 글래머 룩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는 럭셔리 글래머,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키치 글래머, 로맨틱 글래머를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범주로 설정하였다. 사진 자료를 패션특성별로 분류하고 자료를 계량화함에 있어서, 자료 분류는 5인의 패션 전공자가 수행하며, 수집된 패션사진 1000장을 글래머의 유형별로 분류한다. 이 때 분석자들은 사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분석대상의 범주특성을 공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충분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거쳐 분류자간 신뢰도(inter-judge reliability)가 80% 이상 되어있는 상태에서 분류작업을 시행한다. <그림 1>은 분류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제시한 패션 사진자료의 예시이다.

대부분의 내용분석이 명시적인 메시지보다 함축적인 메시지에 관련되어 적용되기는 하지만 복식사 연구자에게는 두 가지 타입의 정보가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디자인 요소에 따른 명시적인 메시지와, 글래머의 특성에 따른 함축적인 메시지를 모두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분류된 유형을 각기 주색채의 색상과 톤, 배색, 재질, 장식 디자인, 문양, 네크라인, 노출 정도와 코디네이션, 사용된 액세

유형	럭셔리	하이퍼페미닌	키치	로맨틱
예시 1				
예시 2				
예시 3				

<그림 1> 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 유형 예시

<표 3> 글래머 룩 유형의 종합분포

빈도수	유형	럭셔리	하이퍼페미닌	키치	로맨틱	결측값	총 계
	계 (%)		157 15.7	420 42.0	297 29.7		

서리로 나누어 계량화함으로써 명시적인 메시지를 통해 각 유형의 디자인 요소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중심적인 여성 이미지와 미적 가치를 알아보아 이에 반영한다. 분류된 결과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방법에 의해 계량화하여, 최종적으로 패션특성의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글래머 룩의 하위유형에서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키치 글래머, 럭셔리 글래머, 로맨틱 글래머의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럭셔리 글래머의 빈도는 15.7%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로맨틱 글래머보다 약간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로맨틱 글래머의 분포 비율은 12.5%의 분포로 다른 두 글래머 룩 유형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여성의 이미지와 미적 가치가 변화하여 전통적인 엘레강스에 가까운 럭셔리와 로맨틱의 감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이퍼페미닌 글래머는 42.0%로 절대적으로 다수의 표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치 글래머는 29.7%의 분포비율을 보인다. 하이퍼페미닌 글래머의 분포가 상당한 것은 패션과 글래머에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연관성에 근거한 것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주의와 관련하여 부적합함과 과잉, 상투성, 과장, 유희와 연관되는 키치의 감성이 글래머와 연관되어 키치 글래머의 유형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룩 유형은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키치 글래머의 두 유형이 주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성적 매력의 발현이 중요시되는 현대 패션에서 이성에 대한 성적 매력 표현, 성적 파외의 과시, 성적 이탈에의 욕구가 글래머 패션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키치적인 감성의 표현도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글래머 룩의 조형적 특성 분석

### 1) 럭셔리 글래머 룩

럭셔리 글래머 룩은 동일색상의 색채, 실크 등의 고급 소재나 투명 소재, 모피 등의 재질을 사용하고 글리터나 주름장식 등을 통해 쿠튀르의 엘레강스와 연관된 사치성을 주로 표현하는 유형이다.

내용분석 결과 럭셔리 글래머 룩은 발렌티노(22.9%)와 베르사체(19.7%), 아르마니(18.5%)의 디자인에 주로 나타났다. 아르마니의 경우, 표본 수가 다른 디자이너들의 자료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럭셔리 글래머 룩에 포함된 것은 대부분의 디자인이 럭셔리 글래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발렌티노는 오프 쿠튀르의 엘레강스를 표현하며 오스카 시상식 드레스에서 대표되는 글리터, 주름 장식 등의 이브닝드레스를 많이 발표하는 디자이너(Rosa, 2004)이므로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럭셔리 글래머 룩의 조형적 특성을 색, 재질, 문양, 라인 등의 조형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주색채는 블랙(13.4%), 화이트(12.7%)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실버, 골드, 그레이 순으로 나타나 무채색 계열이 강세로 나타났다. 실버와 골드는 글리터의 모조보석, 세퀸, 비즈 등과 함께 사용되어 고급의 광택을 표현하는데 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색채의 톤은 무채색 톤이 34.4%로 다수였으며 그 외 비비드 톤(15.3%), 메탈릭(15.9%) 순으로 나타났으며, 10% 이하의 빈도는 페일/라이트 톤, 다크/딥 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색은 동일색 사용이 69.4%로 절대 다수를 나타냈으며 그 외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화(10.2%)가 많이 사용되었다.

재질은 실크와 그 외 광택 있는 직물의 빈도가 57.3%, 투명 소재가 33.8%로 빈도가 높았으며 가죽이나 비닐, 금속 등의 이질적인 소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쿠튀르에서 사용되던 고급의 실크와 광택 있는 소재, 그리고 손질이 어려운 투명 소재의 섬세한 작업과 탁월한 품질이 럭셔리 글래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양은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줄무늬와 격자무늬가 사용된 경우가 10.2%, 그 외 추상문양, 꽃 문양이 사용되었다.

라인 상으로는, 실루엣과 네크라인, 장식 디자인, 노출 정도, 코디네이션, 액세서리 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우선 실루엣 상으로는 스트레이트 실루엣(46.5%)과 아우어글래스 실루엣(3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벌크나 배럴 등 O형 실루엣의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크라인은 어깨끈이 있으며 가슴 윗부분을 드러낸 경우(24.2%)가 많았으며 풀린징 네크라인으로 배 부분에 이르기까지 대담하게 드러낸 경우(15.3%), 홀터 네크라인으로 어깨와 등 부분을 드러낸 경우(11.5%)도 있었다.

장식 디자인의 경우는 모조보석, 비즈, 세퀸 등을 통해 반짝거리는 효과를 살린 럭셔리한 글리터(43.9%)가 다수 사용되었으며, 프릴, 드레이프, 플리츠 등의 주름장식 또한 19.8%의 빈도를 보였고 레이스(8.3%)도 사용되었다. 코디네이션 면에서는 이브닝드레스의 경우처럼 하나의 피스로 된 경우(70.7%)나 하나의 피스에 숄이나 코트를 걸친 경우(10.2%)가 많았다. 액세서리 면에서는 부츠보다 하이힐이 많이 사용되었다(60.5%).

중심적인 미적 가치의 경우 사치성이 52.9%의 빈도를 보여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관능성이 28.0%로 나타났다. 이는 럭셔리 글래머 룩이 고가성을 전제로 시위상징이나 화려한 장식, 탁월한 품질, 고도의 완성도의 정교한 작업과의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은 초여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글래머 룩 유형으로서, 전체 표본 중 가장 많은 수(420개)를 차지한 유형이다. 이는 전체 글래머 룩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으로서, 글래머의 황금 시대에 해당하는 골든 에이지 글래머에 관련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의 디자

인은 베르사체(31.2%) 로베르토 카발리(18.8%)나 지안프랑코 페레(14.8%)의 표본에서 많이 나타났다. 베르사체는 ‘현란함과 글래머의 거장으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을 정도의 인물’(Buckley & Gundle, 2000)로서 초여성적인 글래머를 표현하였다.

주색채 면에서는 블랙(40.7%)이 상당한 빈도를 보이며 그 뒤로 브라운(13.1%)의 빈도로 나타났다. 블랙이 전체표본에서 높은 빈도(25.7%)를 보이기는 하지만, 럭셔리 글래머 룩(13.4%), 키치 글래머 룩(15.2%), 로맨틱 글래머 룩(16.0%)보다 특히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의 유형에 높은 빈도를 보인다. 특히 블랙은 여성의 신체를 압박하는 밀착된 형으로 나타날 때 에로티시즘의 효과가 배가된다(이민경, 한명숙, 1999). 주색채의 톤에 있어서도 무채색 톤이 51.9%, 다크/딥 톤이 15.7%의 빈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비드 톤은 11.0%이었다. 배색에서는 동일색상이 64.0%,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합이 16.0%이었다. 강하고 선정적인 여성성의 글래머 표현으로서 어둡고 강한 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질 면에서는 시스루의 투명 소재(36.7%), 광택 있는 직물(23.1%), 가죽 소재(13.8%)의 빈도 순으로, 럭셔리 글래머 룩이나 에로틱 글래머 룩 유형에 비해 광택 있는 직물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죽은 페티시와의 연결성으로 인해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 유형에서 다른 유형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축성 소재는 9.8%로, 몸에 붙는 라이크라 소재를 사용하여 관능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드러낸다. 특히 베르사체는 가죽을 레이스, 실크, 데님 등을 조합하여 비범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투명 소재가 신축성 소재에 비해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글래머 르네상스에서 여성적인 곡선 강조를 위해 신축성 소재가 많이 사용된 데 비하여, 세기 전환기에는 흐르는 듯한 소재를 통해 자연스러운 여성 신체를 표현하는 추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봉덕, 양숙희(2002)에 의하면,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순수성과 편안함, 자연스러움의 추구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성격인 신자유주의적 특성은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의 하나인데, 패션에서는 천연소재를 사용한 흐르는 듯한 실루엣의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스타일이 나타난다. 이는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문양 면에서는 럭셔리 글래머 룩, 에로틱 글

래머 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양이 없는 무지의 경우가 51.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추상 문양(13.3%), 표범 문양, 뱀 문양, 기타 동물 문양의 빈도(11.9%) 순으로 관찰되었다. 다른 유형에 별로 나타나지 않은 동물 문양의 빈도가 나타난 것은, 그 야생적이고 생명력 있는 특성이 팜프 파탈과 연관되어 디자인의 요소로서 사용된 경우인 것으로 생각된다.

라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루엣 상으로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이 60.3%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바디 컨셔스(49.3%), 트럼펫 실루엣(10.0%)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26.9%로서, 럭셔리 글래머 룩 유형 중 스트레이트 실루엣(46.5%), 키치 글래머 룩 유형 중 스트레이트 실루엣(36.4%), 로맨틱 글래머 룩 유형 중 스트레이트 실루엣(39.2%)에 비하여 그 수가 적어 여성의 신체 곡선을 강조한 실루엣 라인이 직선적인 라인보다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식적 요소 면에서는, 주름 장식(18.5%), 모피, 깃털(16.0%), 레이스(14.3%) 글리터(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피와 깃털은 페티시한 요소와의 연결성이 강하며, 주름장식과 레이스는 여성적인 신체곡선을 돋보이게 하는데 적당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글리터는 투명 소재와 함께 사용되거나 부분적인 장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글리터나 주름 장식 등 다른 유형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 디테일이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에서는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디자인의 초점을 여성 신체 곡선에 두고자 부분적으로 장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 곡선 강조에서 중심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는 네크라인은, 가슴을 노출한 경우가 62.9%, 가슴, 배, 다리를 노출한 경우가 16.4%로 나타났다. 마틸린 먼로 드레스로 대표되는 홀터 네크라인은 등과 어깨를 노출하는 경우로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불과 5.2%로, 상당수의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에서 노출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코디네이션 측면에서는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피스로 된 형태(70.7%)가 많았으며, 원피스에 숄이나 코트를 매치시킨 경우가 10.2%로 나타났다. 함께 사용된 액세서리는 하이힐(47.1%), 부츠(1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심적인 미적 가치는 관능성이 38.2%, 퇴폐성이 32.4%, 차용성이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은 성적 매력에 넘치거나 페티시한



매력의 요부, 선정적인 매력의 글래머 걸을 연상시키는 초여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므로 관능성과 퇴폐성이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 3) 키치 글래머 룩

키치 글래머 룩은 전체 표본 중 297개로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에 이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유형이다. 현란한 색상이나 과도한 글리터 장식, 보석 장식을 사용하며 밀리터리 스타일이나 웨스턴 스타일, 글램 스타일 등 다른 스타일들의 요소를 합성하여 재해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팝 스타들과 하위문화와 관련되어 과잉성과 차용성을 중심적인 미적 가치로 삼는 유형이다.

내용분석에 의하면 디자이너 중 베르사체(26.9%), 로베르토 카발리(18.5%), D&G(18.2%) 등의 작품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베르사체는 엘튼 존, 스팅, 프린스, 조지 마이클 등 유명 가수들과의 친분과 의상 디자인으로 유명하므로, 팝 스타들과 관련된 글래머인 키치 글래머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주색채 면에서 보면 블랙(15.2%), 블루(14.1%)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났으며 그 외 핑크(8.4%)와 브라운(8.1%)의 순이었다. 톤은 무채색 톤(24.6%), 비비드 톤(24.2%), 메탈릭(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럭셔리 글래머 룩 유형의 경우 무채색 톤이 34.4%, 비비드 톤이 15.3%이고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 유형은 무채색 톤이 51.9%, 비비드 톤이 10.2%인데 비하여 키치 글래머 룩 유형은 무채색 톤이 24.6%, 비비드 톤이 24.2%로 그 빈도가 거의 비슷하였다. 로맨틱 글래머 룩 역시 무채색 톤(41.6%)이 비비드 톤(16.0%)인 것으로 보아 키치 글래머 룩은 선명한 색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금속성의 메탈릭 톤 또한 16.8%로 비교적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색은 이전의 두 유형의 경우와 달리,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합(29.6%)이 동일색상(30.3%)의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색상의 대비 조화의 경우(18.9%)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질과 문양 면에서 살펴보면, 재질 면에서는 광택 있는 소재(32.7%)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어 투명 소재(25.6%), 신축성 소재(14.1%)가 뒤를 이었다. 문양 면에서는 무지의 경우(39.4%), 추상 문양(17.8%), 꽃 문양(11.1%)과 믹스 앤 매치의 경우가 약간 높은 빈도(8.4%)를 보였다.

실루엣 상으로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43.5%), 스트레이트 실루엣(36.4%), 배럴 실루엣(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럴 실루엣의 빈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장된 라인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크라인 면에서는 어깨끈이 달린 가슴 노출형 네크라인(22.2%), 플러징 네크라인(16.2%), V 네크라인(12.5%)의 빈도 순서로 나타났다. 장식 디자인 면에서는 모조보석이나 세련, 비즈 등의 글리터(21.2%) 장식의 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주름장식(19.5%), 모피, 깃털(14.4%)의 경우도 비교적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래머 러스한 보석은 가짜일지도 모르고 표면적인 환상으로, 신중하거나 숙녀답지 않게 사용된다(Rosa, 2004). 노출 면에서는 가슴을 노출한 경우가 58.6%, 가슴과 다리를 노출한 경우가 14.8%였으나, 노출을 하지 않은 경우도 10.4%에 달하였다. 노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다른 유형에 비해 신체 자체에 디자인의 초점을 둔 경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코디네이션 측면에서는 역시 원피스의 형태가 41.4%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글래머 전체에서의 원피스 형태 빈도(55.4%)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믹스 앤 매치의 경우는 다른 유형보다는 높은 빈도인 4.0%이었다. 즉 여러 의복 아이템을 코디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팬츠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용된 액세서리는 하이힐(38.7%), 부츠(14.8%) 순이었다.

키치 글래머 룩 유형은 차용성(39.7%), 과잉성(19.9%), 관능성(19.9%)의 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잉과 차용, 에로티시즘과의 키치 본연의 연관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키치 글래머 룩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색상대비나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합 등 색채의 대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럴 실루엣 등의 과장된 라인이나 믹스 앤 매치의 코디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팝 에이지 글래머를 대표하는 유형으로서, 양성적인 분위기의 팬츠나 코디가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

### 4) 로맨틱 글래머 룩

로맨틱 글래머 룩은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과거나 이국적인 것을 차용하면서 관능적이거나 사치스럽게 표현하는 유형이다. 이는 글래머 르네상스

에 주로 나타난 역사적 회고를 특징으로 하는 로맨티시즘 경향으로 핑크, 레드 같은 로맨틱 칼라, 또는 화이트, 블랙, 베이지 등의 차분한 색채에 러플과 프릴, 레이스, 코사지, 프린트 등의 디테일을 표현한다.

로맨틱 글래머 룩이 주로 관련된 디자이너로는 발렌티노(23.2%)나 D&G(17.6%), 베르사체(16.0%)를 들 수 있다. 발렌티노는 전통적인 할리우드 글래머를 연상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G는 여성적인 곡선을 강조하는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을 글래머와 조합하여 비즈달린 코르셋, 검은 스타킹, 레이스 달린 언더웨어 등 장식적인 아이템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로맨틱 글래머 룩은 다른 유형에 비해 a/w 보다 s/s 컬렉션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가벼운 색채나 소재와의 연관성이 높아 봄과 여름의 의복 스타일로 더 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형적 요소 면에서 로맨틱 글래머 룩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주색채는 화이트(21.6%), 블랙(16.0%), 블루(1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이트의 빈도가 블랙보다 높았다. 전체 표본에서 블랙의 빈도(25.7%)가 상당히 높은 데 비하여 로맨틱 글래머 룩 유형에서의 블랙의 빈도는 16.0%로 나타났으며, 화이트는 전체 표본에서의 빈도(10.4%)에 비하여 21.6%로 높게 나타났다. 로맨틱의 대명사인 핑크는 5.6%의 빈도를 보였다. 주색채의 톤은 역시 무채색 톤(41.6%)이 높았으나 두 번째로 페일 톤(17.6%)이 높아 명도가 높은 가벼운 색채가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비비드 톤이 16.0%로 나타났다. 배색 면에서는 동일색(48.8%)의 사용이 많이 나타났으며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합(20.8%)의 빈도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재질 면에서는 시스루의 가벼운 투명 소재의 빈도가 46.4%로 나타나 명도가 높은 색상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는 광택 있는 직물이 31.2%로 나타났다. 문양은 무지의 문양 없는 경우가 38.4%였으나 두 번째의 빈도를 보인 것이 여성적인 꽃 문양(24.8%)이었고 그 뒤로는 식물 문양(18.4%)이었다.

라인 측면에서 로맨틱 글래머 룩 유형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실루엣 상 아우어글래스 실루엣(49.6%), 스트레이트 실루엣(39.2%)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특히 트럼펫 라인이 12.8%의 빈도를 보였다. 네 크라인은 어깨끈이 있는 가슴 노출형 네 크라인(28.0%), 가슴과 배까지 드러내는 플런징 네 크라인(13.6%), 그 후는 라운드 네 크라인(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식 디자인의 경우 프릴, 드레이프와 같은 주름장식

(36.0%)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 자수 장식(16.0%), 레이스 장식(13.6%) 빈도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글래머 룩 유형에 비하여 글리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무게감이 덜한 장식이 디테일과 트리밍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레이스는 ‘부드러움과 투명성을 통해 육구를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억제하는 주체함을 허용’(Rosa, 2004)하는 소재이다. 노출 면에서는 가슴을 노출하는 빈도가 62.4%로, 전체 유형에서의 가슴 노출 빈도와 거의 비슷하였다.

코디네이션과 사용된 액세서리를 살펴보면, 코디 측면에서는 역시 원피스의 경우가 52.0%로 높게 나타났다. 원피스와 코트를 코디한 경우는 8.0%로서, 럭셔리 글래머 룩이나 하이퍼페미닌 글래머 룩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는 하이힐이 40.8%, 부츠가 10.4% 사용되었다.

로맨틱 글래머 룩의 유형은 중심된 미적 가치로 볼 때, 차용성(28.8%), 사치성(28.0%), 관능성(24.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세 가지의 빈도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치성과 차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로맨틱 글래머 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로맨틱 글래머 룩은 페일 톤 등의 가벼운 색채와 투명 소재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되며, 문양은 없거나 꽃이나 식물 문양이 사용되고 주름장식과 자수, 레이스가 많이 사용되는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는 유형별 조형적 특징과 관련 디자이너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세기 전환기의 글래머의 특징을 미적 가치별로 구분해 보면, 우선 사치성은 세기 전환기에 이르러 양적, 질적 풍요로움과 고가성, 장인정신을 통한 예전의 강력한 권위와는 다른, 고급 브랜드와 글리터와 광택 등을 통한 표현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잉성은 극단적인 양적 풍부함, 거대성, 융합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수평적 부피를 확장하면서도 육중하지 않은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모호한 유희적 매력의 정체성의 기술에 해당하는 장식성은 탈 경계의 혼성적 특성과 함께 남녀 복식의 결합으로 지속되고 있다. 차용성은 역사적, 이국적 또는 일상적인 것의 재구성고 재해석에 해당하는데, 세기 전환기에 이르러 역사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유희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식 형태에 새로운 재질과의 혼합, 장식성이 가미된 시대적 절충

<표 4> 1996-2005년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룩의 유형별 특성과 미적 가치

유형		럭셔리(n=157)	하이퍼페미닌(n=420)	키치(n=297)	로맨틱(n=125)	
특성	디자이너	Valentino(22.9) Versace(19.7) Armani(18.5)	Versace(31.2) Cavalli(18.8) 페레(14.8)	Versace(26.9) Cavalli(18.5) D&G(18.2)	Valentino(23.2) D&G(17.6) Versace(16.0)	
색	주채	블랙(13.4) 화이트(12.7)	블랙(40.7) 브라운(13.1)	블랙(15.2) 블루(14.1)	화이트(21.6) 블랙(16.0) 블루(12.0)	
	톤	무채색(34.4) 비비드(15.3) 메탈릭(15.9)	무채색(51.9) 다크톤(15.7)	무채색(24.6) 비비드(24.2) 메탈릭(16.8)	무채색(41.6) 페일 톤(17.6) 비비드(16.0)	
	배색	동일배색(69.4) 무+유채(10.2)	동일배색(64.0) 무+유채(16.0)	동일배색(30.3) 무+유채(29.6) 색상대비(18.9)	동일배색(48.8) 무+유채(20.8)	
조형적	재질	광택(57.3) 투명(33.8)	투명(36.7) 광택(23.1) 가죽(13.8)	광택(32.7) 투명(25.6) 신축성(14.1)	투명(46.4) 광택(31.2)	
	문양	없음(58.0) 줄/격자(10.2)	없음(51.0) 추상(13.3) 동물 문양(11.9)	없음(39.4) 추상(17.8) 꽃(11.1)	없음(38.4) 꽃(24.8) 식물문양(18.4)	
특성	라인	실루엣	스트레이트(46.5) 아우어글래스(36.9)	아우어글래스(60.3) 스트레이트(26.9)	아우어글래스(43.5) 스트레이트(36.4) 배럴(14.8)	아우어글래스(49.6) 스트레이트(39.2)
		넥라인	어깨끈(24.2) 플런징(15.3) 홀터 넥(11.5)	어깨끈(19.0) 플런징(16.7) 하이넥(10.7)	어깨끈(22.2) 플런징(16.2) V 넥(12.5)	어깨끈(28.0) 플런징(13.6) 라운드(19.2)
	장식	클리터(43.9) 주름장식(19.8)	주름장식(18.5) 모피, 깃털(16.0) 레이스(14.3)	클리터(21.2) 주름장식(19.5) 모피, 깃털(14.4)	주름장식(36.0) 자수(16.0) 레이스(13.6)	
	노출	가슴노출(68.8) 가슴다리(11.5)	가슴노출(62.9) 가슴배다리(16.4)	가슴노출(58.6) 가슴다리(14.8) 노출안함(10.4)	가슴노출(62.4) 가슴 배(16.8)	
	코디	원피스(70.7) 원피스+코트(10.2)	원피스(70.7) 원피스+코트(10.2)	원피스(41.4) 탑+치마(13.8)	원피스(52.0) 스커트(12.0)	
	액세서리	하이힐(60.5)	하이힐(47.1) 부츠(14.5)	하이힐(38.7) 부츠(14.8)	하이힐(40.8) 부츠(10.4)	
미적 가치	사치성(52.9) 관능성(28.0)	관능성(38.2) 퇴폐성(32.4) 차용성(16.4)	차용성(39.7) 과잉성(19.9) 관능성(19.9)	차용성(28.8) 사치성(28.0) 관능성(24.8)		

으로 표현된다. 이국적인 요소 역시 각 민족적 요소의 혼재로 나타나고 있다. 관능성은 여성의 신체곡선의 육감적인 표현으로서 여성 신체를 노골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이에 할리우드 글래머의 여신 이미지도 2000년대 들어 숭배의 대상이라기보다 도발적이고 아이러니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퇴폐성은 성애화된 폭력에 대한 암시와 자극적 향락으로서, 공포스런 존재로서의 세기 전환기 요부 이미지와 쇼걸 이미지에 표현되고 있다.

표본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동일색상이 사용되고

문양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로 관심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블랙과 화이트 등 무채색의 색채가 많이 사용되고 광택 있는 소재나 투명 소재의 빈도가 높으며, 어깨끈 넥라인의 사용 등 노출이 많으며 클리터와 주름장식, 모피의 장식도 사적 고택에서 나타난 바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디네이션 면에서 볼 때, 원피스 형의 이브닝드레스, 또는 이브닝드레스와 슌, 코트 등의 코디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럭셔리 글래머와 하이퍼페미닌 글래머에서 원

피스 형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세서리로는 하이힐이 자주 사용되었고 특히 럭셔리 글래머에서 그 빈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스카 스타일에서 대표되는 스타들의 전형적인 이브닝드레스와 하이힐이 글래머의 대표적인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 1보에서 행한 글래머 룩의 사적 고찰에 따른 미적 가치와 유형에 따라, 1996 s/s 시즌부터 2005 a/w 시즌까지의 이탈리아 디자이너 10명의 기성복 컬렉션 사진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고급의 쿠튀르를 바탕으로 하는 유형인 럭셔리 글래머 룩은 동일배색의 색채나 무채색이 많이 사용되며 광택이나 투명 소재 등 손질이 어려운 소재에 글리터나 주름장식이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2. 하이퍼페미니 글래머 룩은 블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투명이나 가죽, 신축성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여성의 신체곡선 강조와 노출을 디자인의 초점으로 한다.

3. 키치 글래머 룩은 색상대비나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합 등 색채대비가 사용되며 배럴 실루엣 등의 과장된 라인이나 믹스 앤 매치의 코디가 사용되기도 한다.

4. 로맨틱 글래머 룩은 페일 톤 등의 가벼운 색채와 투명 소재, 무지, 꽃 문양, 식물 문양이 사용되며 주름 장식과 자수, 레이스가 많이 사용된다.

내용 면에서 글래머 룩은 사치성과 과잉성, 가상성, 차용성, 관능성, 퇴폐성이라는 글래머 룩의 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특히 20세기 전환기에 있어서 부드러운 관능성에 강조점을 둔다. 투명 소재는 패션이 신체와 합치되어 그 경계가 사라지며 레이어 효과의 환상적인 효과를 내고, 레이스 소재 또한 전통적인 장식 효과뿐 아니라 여성성의 표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는 여성 신체를 관능적으로 노출한 글래머로서,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현대적 사고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글래머 룩 전체에서 지배적인 유형인 하이퍼페미니 글래머 룩과 연관된다. 또한 키치적인 하위문화 스타일은 20세기 후반 이래 본래의 전복적인 의도를 상실한 채 신선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영감으로 사용되어왔고 세기 전환기에도 탈 경계, 탈

영역의 혼성적인 경향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삶에 대한 태도나 시대정신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의 현시로서, 상업적인 키치 글래머 룩으로 해석된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세기 전환기의 로맨틱 글래머 룩은 a/w보다 s/s 컬렉션에 주로 표현되었으며 가벼운 소재와 가벼운 색상을 사용하며 절제된 아름다움과 품위있는 여성성을 혼합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1996년 s/s에서 2005년 a/w까지의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룩은 기존의 글래머 룩의 미적 가치가 다양하게 추구되는 가운데, 여성성과 부드러운 관능성에 관심을 두는 하이퍼페미니 글래머 룩이 강세를 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고급의 럭셔리 글래머 룩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자인의 영감으로서 하위문화적 감성을 차용한 키치 글래머 룩의 특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로맨틱 글래머 룩의 가볍고 여성적인 스타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글래머 룩은 양식적 차이를 보이거나 앞으로도 패션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1: 복식미를 보는 시각*. 서울: 교문사.
- 이민경, 한명숙. (1999).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2), 323-333.
- 이봉덕, 양숙희. (200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한국미학회지*, 26(11), 1649-1659.
- 정홍숙, 정삼호, 홍병숙. (1998). *현대인과 의상*. 서울: 교문.
- Bond, D. (1992). *Glamour in Fashion*, Middlesex: Guinness.
- Buckley, R. & Gundle, S. (2000). Flash Trash: Gianni Versace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Glamour. In Bruzzi, S. & Gibson, P. (Eds.), *Fashion culture: Theories, explorations and analysis* (pp. 331-348). London: Routledge.
- Designer Collection Photos. (1996 s/s~2005 a/w). *firstview*. 자료검색일 2005, 5. 1~1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Evans, C. (2003). *Fashion at the edge: Spectacle, modernity and deathlin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aoletti, J. (1982). Content analysis: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4-17.
- Roberts, N. (1992). *역사 속의 매춘부들*. 김지혜 역, 서울: 책세상.
- Rosa, J. (2004). *Glamour: Fashion+Industrial Design+Architectur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 Steele, V. (2003). *Fashion, Italian Sty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